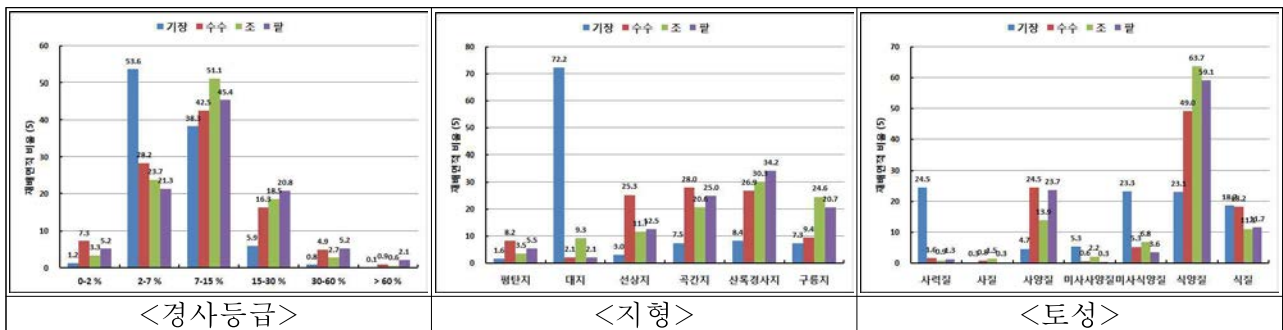


‘농업경영체등록정보’ 확정 필지정보를 대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ArcGIS 9.2)을 이용하여 입지조건, 경사등급, 배수등급, 토성 등 토양특성 속성정보를 연결하여 재배지역의 입지조건을 분석한 결과 기장을 제외한 수수, 조, 팥의 경우 경사 7% 이하의 평야지가 30.9%인 반면, 7% 이상의 경사지가 69.1%로 대부분 경사지 지형에 재배되고 있었다. 반면 기장의 경우는 대부분 제주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어서 경사 7% 이하의 평야지가 54.8%로 7% 이상의 경사지가 45.2%에 비해 높았다. 재배 지형별 재배현황은 그림 1-4에서와 같이 산록경사지 23.7%, 곡간지 20.3%, 선상지 14.0%, 구릉지 13.5%로 하성평탄지 5.0%, 대지 23.5%로 입지조건이 열악한 조건에서에서 재배되고 있었다. 또한 토성별 재배면적은 사력질 7.79%, 사질 0.62%, 사양질 17.52%, 미사사양질 2.03%, 미사식양질 10.02%, 식양질 46.17%, 식질 15.85%에서 재배되고 있었다.

그림 1-4. 토양환경 특성별 잡곡(조, 수수, 기장, 팥)의 재배면적 분포비율 (단위 :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잡곡류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량성이 낮아 경영상 불리하고, 쌀 생산 장려정책에 밀려 식량 생산 분야에서 소외되어 왔고 소비자의 기호를 높일 수 없으며 농산물의 수입 자유화로 외국산 잡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국내 양곡 정책은 주로 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잡곡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잡곡의 재배는 단지 규모가 작고 원료곡 생산위주의 영농형태로 재배되고 있으며, 파종, 솟음, 제초작업, 수확 등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수작업 의존도가 높고, 지역별 파종기, 재식밀도, 시비량, 시비기술 등 재배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조는 벼농사에 비해 지역별로 재배특성, 재배품종, 재배법 등이 다양하고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등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수작업 의존도가 높고, 다른 작물에 비해 생산기반이 열악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잡곡 재배농가 재배현황 실태 분석

주요 잡곡류의 재배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많은 시군을 대상으로 조(30지점), 수수(30지점), 기장(30지점), 팥(30지점)등 총 120 농가를 선정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작부체계, 재배양식, 파종방법, 파종시기 등 재배현황 실태를 조사하였다. 잡곡 재배농가 재배현황 실태 분석한 결과 그림 1-5에서와 같이 품목별 파종시기를 분석한 결과 조, 수수, 기장, 팥은 6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파종하고 있었다. 수수는 6월 초순이 7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조는 6월 중순 53.3%, 6월 하순 30%였으며, 6월 초순이 30%로 각각 조사되었다. 기장은 7월